

읽은 글을 내 것으로 만드는 10분 인출 연습

똑똑 · 에디터 도담 · 발행 2026.09.28

책을 덮고 떠올린 뒤, 틀린 곳을 확인하고 다시 설명합니다.

개념 설명과 자체 제작한 적용 사례를 함께 읽습니다. 가상 사례·수치는 해당 위치에 표시했습니다.

쉬운 설명

친구의 이름을 보면 아는 것과 사진 없이 이름을 떠올리는 것은 다른 경험입니다. 공부도 자료를 잠깐 덮고 생각을 꺼내보면 어디까지 아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 인출은 기억에서 내용을 꺼내는 활동입니다.
- 확인과 피드백을 붙여 틀린 설명이 남지 않게 합니다.
- 10분은 시작을 돕는 예시이며 검증된 최적 시간은 아닙니다.

준비 · 짧고 분명한 학습 대상을 고릅니다

처음에는 한 단원의 모든 내용을 떠올리려 하지 말고 설명할 개념 하나를 고릅니다. 예를 들어 RE100의 범위나 퍼센트포인트의 뜻처럼 정확성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 주제가 좋습니다. 읽기 전에 “끝나면 무엇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나”를 한 문장으로 씁니다.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오래 버티는 활동이 목표는 아닙니다. 처음 이해가 부족하면 설명과 예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힌트를 사용합니다. 인출은 학습자를 시험대에 올리는 평가만이 아니라 다음 공부를 고르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10분 예시 · 보기·떠올리기·확인·재시도

- 2분: 핵심 설명과 예시 읽기
- 3분: 자료를 덮고 정의·사례 쓰기
- 3분: 원문과 대조하고 오류 표시
- 2분: 틀린 부분을 자기 말로 다시 설명

똑똑이 만든 10분 활동 예시. 시간 배분은 내용과 학습자에 맞게 바꿉니다.

실행 · 똑같은 문장이 아니라 뜻을 꺼냅니다

RE100 글을 읽었다면 “무엇의 100%인가”,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문구 공장의 예시를 어떻게 설명할까”를 자료 없이 적어봅니다. 원문의 표현을 정확히 복제하려고 하기보다 핵심 범위와 관계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떠오르지 않는 부분에는 빈칸이나 물음표를 남겨도 됩니다. 그 자리가 다음에 확인할 내용입니다. 답을 먼저 보며 아는 느낌을 확인하는 방식과 자료 없이 답을 구성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두 활동을 의도적으로 나누어보세요.

점검 표 · 틀림을 다음 행동으로 바꾸기

내 설명의 문제	다음 확인
용어를 바꿔 썼다	정의와 비슷한 개념 비교
예시는 기억나지만 이유가 없다	사례가 개념에 해당하는 조건
범위를 과장했다	설명할 수 없는 영역
정답만 기억한다	새로운 예시에도 적용 가능한지

자체 점검표이며 학습 능력 진단표가 아닙니다.

확인 · 맞은 부분과 고칠 부분을 나누어 표시합니다

원문을 열어 내 설명과 비교합니다. 모든 문장을 다시 베끼지 말고 핵심 오류 한두 개를 선택해 고칩니다. 틀린 부분을 확인한 뒤에는 수정한 답을 보지 않고 한 번 더 설명해보세요. 피드백을 읽는 것과 수정된 설명을 꺼내는 일을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연구에서 인출 연습이 다뤄진다고 해서 질문을 많이 만들수록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정확성, 학습 단계와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계속 막힌다면 질문을 더 작게 나누거나 선행 개념을 다시 확인합니다.

반복 · 다음에는 다른 사례로 확인합니다

문구 공장 예시를 외운 뒤 같은 문제만 풀면 개념을 이해했는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데이터센터나 학교 처럼 다른 상황에서 전력의 범위를 설명해보세요. 직접 적용해 보는 질문은 외운 문장을 재생하는 것과 다른 정보를 줍니다.

이 활동의 기록은 정답률 경쟁보다 공부 선택에 사용합니다. 계속 헛갈리는 개념은 비교표로 정리하고, 설명은 되지만 계산이 막히면 풀이를 연습하는 식입니다. 목표에 따라 활동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접 생각해 보기

자료를 덮고 RE100이 말하는 범위와 말하지 않는 범위를 각각 한 문장으로 써보세요.

확인 설명

사용 전력에 관한 약속이라는 점과 기업의 모든 환경 영향이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 포함되면 핵심 구분을 했습니다. 표현이 다르더라도 뜻을 확인하세요.

틀린 답을 쓰면 오히려 나쁜가요?

틀린 답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확인·수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류가 다음에 확인할 내용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항상 글로 써야 하나요?

말로 설명하거나 간단한 도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로 삼은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고르세요.

원문과 출처

- IES · 학습과 수업 조직 실천 지침 (2007) — <https://ies.ed.gov/ncee/wwc/PracticeGuide/1>: 간격 학습·퀴즈·이해 점검의 권고. 이 사이트의 구체적인 시간표는 자체 활동 예시입니다.
- IES · 교실에서의 인출 연습 연구 — <https://ies.ed.gov/use-work/awards/test-enhanced-learning-classroom>: 인출 연습의 교실 적용 연구. 이 글의 문항은 해당 연구의 실험 문항이 아닙니다.

제작 방식과 정정 안내: <https://www.dokdok.co/about#editorial>

온라인 원문 · 수정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dokdok.co/reading/retrieval-routine>